

커플 관계에서의 질투망상성 척도개발 및 타당화

김 춘 희* 김 미 경**

국문초록

본 연구는 미혼, 기혼 커플의 질투망상성 척도를 개발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함이다. 예비문항 추출을 위해 선행연구 고찰과 인터뷰 및 온라인에서 스크리닝 과정을 통과한 103명에게 문항을 수집하였다. 이후 전문가의 내용분석으로 선별된 61개의 문항으로 다섯 요인을 가정하여 208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네 개 요인 52개 문항이 추출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성인 남녀 459명에게 본 조사를 실시하여 50문항의 질투망상성 척도를 완성하였다. 분석을 위해 사용한 프로그램은 SPSS 26.0과 AMOS 25.0이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편집, 열등감, 학대, 불안 네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확인적 요인분석 및 수렴타당도, 판별타당도를 실시하였고 네 개 요인구조 모형의 적합도가 적절하게 나타나서 구성개념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준거관련 타당도 분석을 위해 성격평가 질문지의 망상척도, 편집성척도, 이화방어기제검사의 투사척도, 심리도식 질문지의 유기척도, 자존감척도 변인을 사용하였다. 질투망상성 척도의 총점 및 하위구성요인과 준거변인 간에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준거관련 타당도가 수용 가능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의의와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주제어: 질투망상, 편집, 열등감, 학대, 불안

*휴먼소통상담심리연구소 연구원

**서울한영대학교 재활상담심리학과 부교수

I. 여는 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부부로 비유하는 것은(엡 5:24-25) 부부관계와 결혼생활에 있어서 배우자와의 신뢰감이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신뢰는 친밀한 관계에서 요구되는 바람직한 속성 중의 하나로 이상적인 관계를 이룩하기 위한 초석으로 여겨져 오던 개념이다(Rempel, Holmes, & Zanna, 1985).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에서 신뢰는 중요한 요소이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평안하고(사 26:3), 구원을 얻는다(사 12:2).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연인관계, 부부관계가 불안정한 관계로 지속되면, 한 개인의 인지 및 정서 및 행동은 비합리적으로 되어 때로는 이들 관계가 소모적이고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만성화되면 심리적인 건강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부부간의 성적인 부적절함에 대한 의심은 부부갈등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김효숙(2014)은 기독교 중년여성들의 부부갈등 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아내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이 공통적으로 나타남을 밝힌 바 있다. 이는 '병적인 의처증'이 부부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반증해 주고 있다. 부부생활에서 안정감과 신뢰감을 높일 수 있는 성생활의 신체적 접촉은 부부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데(이희숙, 2008), 이런 친밀감의 요인인 성적인 부분에 대해 특별한 이유 없이 배우자나 연인이 부정적 저질렀다는 의심을 하는 것을 DSM-5에서는 질투망상이라고 한다(권석만, 2018).

여성가족부의 2019년 가정폭력실태조사에서 성인의 유배우(사실혼 포함)응답자의 폭력 경험의 지난 1년간 5개 유형 폭력(신체적/성적/경제적/정서적 폭력 및 통제) 중 '통제 피해 경험률'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바람을 피운다고 자꾸 의심하고 비난'하여 통제하는 피해 경험은 33.3%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남녀 비율을 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피해 경험이 많은 편이었으며, 정신적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는 여성만 응답하였다. 이와 관련된 전체 경험률 순위를 보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 '비난하는 행위', '사회활동을 못하게 하거나 허락을 받도록 하는 행위'의 경험률이 높았다. 한국여성의 전화의 "2019년 분노의 계이지: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의한 여성 살해 분석" 자료에 따라 혼인이나 데이트관계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의한 여성 살해 범행 동기를 살펴보면, '다른 남성과의 관계에 대한 의심 등 이를 문제 삼아'가 25명(12.8%)이나 되었다. 이런 조사 자료뿐만 아니라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도 종종 부부 또는 연인 간의 의심으로 인한 사건을 접할 수 있다. 동아일보 2019년 기사를 살펴보면 '외도를 의심하는 아내의 잔소리가 듣기 싫다며 칼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난다거나, 전처에게 돈을 송금한다고 의심해 다룬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건 수년 전부터 A씨에게 의부증이 발현한 것으로 드러났다'가 있었다. 또한, 연합뉴스 TV의 2020년 보도 중 '수년 전부터 남편의 의처증으로 다툼이 잦던 중 남편이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하고 본인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60대 남편과 50대 아내가 숨겨있는 것을 아들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가 있었다. 이처럼 배우자에 대한 의심은 가정폭력의 원인이 되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부편집과 가정폭력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데이트 폭력 중 의심에서 비롯된 폭력 또한 심각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배우자뿐만이 아닌 연인관계에서 비롯된 상대 이성에 대한 의심 또한 질투망상의 범주에 속한다고 가정하여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란 용어와 함께 애인이란 용어도 사용하였다. 망상장애의 발병은 주로 성인기 중기나 후기에 시작되는 경향이 있다(권석만, 2018). 중년기란 40세경부터라고 규정하였지만 이 시기가 시작되고 끝나는 정확한 시점을 구별하기는 쉽지 않다(신명희 외, 2018). 그로 인하여, 본 연구는 35세 이상부터 75세까지의 남녀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황규홍(1977)은 3년 가까이 질투망상이 포함되어 있는 6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직접 면접과 병상일지, 주치의와의 면접을 통해 분석하였는데, 남자의 비율이 여자보다 약 1.9:1로 많았다. 실제 임상 장면에서 편집성 성격장애는 남성에게 더 많다(권석만, 2018). 이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조사에 임하는 대상자의 비율을 남성을 많이 책정해 진행하였다.

질투망상으로 인한 피해는 가정과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 그런 이유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남녀 연인이나 부부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신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질투망상 증상이 있는 환자의 경우 그 환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전체가 파탄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황규홍(1977)이 질투망상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다고 지적한 이래로 아직까지도 이 방면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지금까지도 특별한 치료법이 개발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기도 하다(정희연, 1993). 이처럼 연구가 미흡한 질투망상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개인적 문제와 더불어 가족 체계 및 부부간의 분석과 해결방안 마련이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편집증은 정상인으로부터 심한 편집망상에 이르기까지 연속선상에서 존재한다(이훈진, 원호택, 1995). 그러므로 질투망상 또한 정상인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되는 심리적 현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문항을 수집하고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개발하고자 하는 척도는 질투망상성으로 명명하였다.

질투망상과 관련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질투망상에 영향을 미치는 하위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다. 둘째, 증상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측정 도구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 질투망상 증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혼 및 미혼 커플에게 서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성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의심을 받는 배우자와 의심을 하는 배우자가 상대와 자신을 이해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질투망상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질투망상의 증상과 관련된 심리적 특성을 먼저 검토할 것이다. 둘째, 질투망상성 척도에 대한 문항을 제작하고 요인분석을 수행하여 요인 구조와 신뢰도를 살펴볼 것이다. 셋째, 질투망상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어 선별한 선행 척도들과 함께 관련성을 살펴보고 상관분석을 수행하여 타당도를 검증할 것이다. 이에 따라 질투망상성 척도를 제작해 그 신뢰도와 타당도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II. 펴는 글

1. 이론적 배경

1) 질투망상의 개념

질투망상(嫉妬妄想)은 우리말샘(2020)에 배우자나 연인이 부정하다고 반복적으로 대치하거나 간통을 상상하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장애로 설명 되어있다. DSM-5에서 질투망상(嫉妬妄想), 부정망상(不貞妄想)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의처증, 의부증, 오셀로 증후군으로 알려져 있는 개념이다(권석만, 2018).

질투 망상은 편집증에서 주된 특징이며, 의심을 할 만한 어떤 기반이나 관련된 증거가 없어도 자신의 배우자가 정절을 지키지 않았다고 병적 질투를 보이며, 지속적으로 상대방의 행동과 인간관계를 통제 하려고 시도한다(Beck, Freeman, & Davis, 2019). 이러한 질투 망상은 시기심과 질투심이 강하여 파트너와 배우자를 의심하고 학대하며 유기불안과 투사, 적대감, 원한, 낮은 자존감 등의 특징을 나타낸다(Meissner, 2009).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도 질투망상의 요소로 편집, 망상, 열등감, 학대, 불안, 투사의 개념을 다루고자 한다.

2) 질투망상과 관련된 요인들

질투망상과 관련된 첫 번째 특징은 편집증이다. 편집증(paranoia)은 ‘불신과 의심’이라는 인지양식에 의한 증상으로 질투망상은 편집증에서 주된 특징이다(Meissner, 2009). Meissner(2009)에 의하면, 편집증상은 여러 정신장애 진단군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면서도 가장 연구가 부족하고 치료도 어려운 증상의 하나이다. DSM-5의 진단 기준에서 편집성 성격장애는 타인의 동기를 악의에 찬 것으로 해석하는 등 광범위한 불신과 의심이 있다(권석만, 2018). 편집증적 인격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 질투 망상의 특성을 보이는데, 특히 어떤 근거 없이 배우자나 성적 상대자의 정절에 대해 반복적으로 의심하지만(DSM-5, 2013) 다른 모든 성격 기능은 온전한 상태로 남아 있는 사람이다(Meissner, 2009). 편집성 성격을 지닌 사람은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학대 받은 경험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가학적 태도를 내면화하고 타인은 믿지 못할 악한 존재라는 생각을 강화하게 된다(권석만, 2018). Jeffrey E. Young (1990)의 심리도식에서 불신/학대의 심리도식을 지닌 사람들은 편집증을 보이는데,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지 판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증거들을 수집하고 시험한다(Young, Klosko, & Weishaar, 2003). 정희연(1993)은 질투망상이 발병된 환자의 성격은 편집성 성격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는데, 편집증(paranoia)이란 용어는 다른 마음(beside mind)이란 뜻으로 사용되어 왔다고 한다. 편집증의 측면과 흡사한 또 다른 마음의 상태는 복수심 혹은 원한을 품는 태도이다(Beck, Freeman, & Davis, 2019). 이는 내면의 수치심을 감추기 위해 일어나며, 자신이 무시되거나 배신당하지 않기 위해 초긴장을 늦추지 않는다고 한다(Bradshaw, 2013). 편집적인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자기효능감 증진, 신뢰감 쌓기, 의사소통기술 향상 및 대인관계 행동수정, 공감, 인지적 기법과 행동실험 등이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eck, Freeman, & Davis, 2019).

두 번째는 망상장애(delusional disorder)를 들 수 있다. 망상장애(delusional disorder)의 원인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어린 시절에 기본적인 신뢰감(basic trust)이 형성되지 못한 것이 원인(Young, Klosko, & Weishaar, 2003)이라는 것과 둘째, Freud의 학설로서 동성애적 충동에 대한 갈등이 억압되고 변형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잠재된 동성애적 경향은 받아들이기 힘들고 위협적이며 충동적이므로 배우자에게로 변형되어 나타나는 것이 질투망상(delusion of jealousy)이다(권석만, 2018). 셋째, 타인에게서 긍정적인 태도를 불러일으키지 못할 때 존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여 망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열등감, 무가치감, 무능력을 경

협하며 우울, 적대감을 표현하게 된다(Meissner, 2009). 넷째, 자신에게 있는 고통스런 감정을 자아 밖에 존재하는 것으로 여기는 투사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이로 인해, 책임전가, 현실왜곡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김재은 외, 1991). 부정망상(delusion of infidelity)은 병적 질투(pathological jealousy)로써 주로 결혼관계에서 발생되는데 배우자 이외의 대상에 대한 무의식적 성충동을 갖게 되는 경우, 이것을 배우자에게 투사함으로써 나타난다는 것이 정신역동학적 견해이다(Freedman & Kaplan, 1980). 망상(delusion)은 견고하게 지속되는 자신과 세상에 대한 잘못된 강한 신념으로, 있을 법한 생활상황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정신분열병과 다르며 치료가 어렵다(권석만, 2018).

망상장애는 정신분열증의 주요 양성증상으로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은 망상이나 환각 같은 증상과 연관될 수 있다(Meltzer & Stahl, 1976). 또한 흡연자의 담배에 많이 들어있는 니코틴도 도파민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다(김상은, 2000). 편집증적 성격의 주요 증상인 의심은 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망상적인 소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신과 과경계, 질투심, 피해의식, 원망과 적개심을 지니고 있기도 한다(김영환 외, 2017). 질투 망상은 의심을 할 만한 어떤 기반이나 관련된 증거가 없어도 자신의 배우자가 정절을 지키지 않았다고 확신하게 되는 망상이다(Meissner, 2009). 셰익스피어의 비극 <오셀로>(1604)에서 오셀로는 부정적인 상상력을 키워 무고한 아내를 질투하고 의심하기에 이르러 비극을 맞이하게 된다. 인간의 본성 가운데 가장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질투'임을 오셀로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내용에 유래하여 로드아일랜드 대학의 Westlake(1999)교수는 아무 증거 없이 배우자를 의심하는 의처(부) 증세를 일종의 정신병으로 보고 오셀로 증후군(Othello syndrome)이라고 명명하였다(김기호, 2016에서 재인용).

세 번째 특징은 자존감(self-esteem)과 관련해 열등감(inferiority complex)을 들 수 있다. Adler(1972)와 Tolle(1987)는 자존감의 상실을 망상 발달의 주된 원인으로 가정하였다(권석만, 2018에서 재인용). 애정관계에서 자존감은 질투의 주요 매개자로서 기능한다(DeSteno, Valdesolo, & Bartlett, 2006). 낮은 자존감은 공격성을 가져오며 신뢰를 감소시키고 질투심을 증가 시킨다(Bonnie, 2008). Rosenberg(1979)는 자존감을 자기 자신을 존경하고 바람직하게 여기며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았고, Coopersmith(1967)는 자존감을 자신이 성취하는 사회적 지위와 중요 타인으로부터 받은 존중과 수용하는 정도라고 정의하였다(이사문, 2010에서 재인용). 편집증적 성격과 망상적인 소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피해의식이 있으며, 실패와 관

련된 비난을 외부로 투사한다(김영환 외, 2017). Sullivan(1956)은 부적절감과 열등감에 대한 보상과 방어라는 측면에서 편집증에 대한 사고를 설명하였다. 편집증적 생각은 극심한 열등감, 무가치감, 무능력을 없애기 위한 과정으로 이는, 적응적인 모든 노력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불안을 발생시킨다(Meissner, 2009에서 재인용). 성적 질투에서 낮은 자존감은 높은 질투와 연관되며, 자존감은 애정, 질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Mullen & Martin, 1994). 열등감에 대한 지각은 치명적인 자기 체계의 결핍을 나타내는 심각한 불안을 낳는다(Meissner, 2009). 열등감은 폭력과 관계가 있다. 하춘자(2000)의 연구를 보면, 43.2%의 피해여성이 남편의 구타이유가 남편의 열등감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자아존중감이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자로 자신을 바르게 인식하여 스스로의 가치, 능력,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오윤선, 2012).

네 번째 특징으로는 폭력(violence), 학대(abuse), 통제(control)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질투의 내적인 정서는 파트너와의 관계적 공격성과도 관련이 있다(Bonnie, 2008). 황규홍(1977)은 질투망상자의 폭행은 주로 배우자에게 향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즉, 배우자나 연인 외의 다른 사람이나 생활에서는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내학대의 심리적 특징은 아내가 만나는 대상이 실제적이든 가상적이든 병적인 질투심을 느끼며(의처증 등), 일상생활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느끼는데도 이를 적절히 해소할 만한 인자나 방법을 찾지 못했을 때 결국 학대로 이어진다고 본다(김수울, 2006). 편집증적 증후군은 때때로 신체적 폭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분노 및 증오와 관련될 수 있다(Meissner, 2009). 많은 문헌에서 가정폭력, 학대, 폭행, 구타 등의 명칭이 혼용되고 있는데(박미은, 1997), '폭력'은 주로 상대에게 가하는 신체적인 공격(physical attack)과 유사어로 사용되고 있다(이영희, 199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분류코드 Y07.0에서 배우자 또는 동거자에 의한 기타 '학대'는 고문, 성적 학대, 신체적 학대, 정신적 학대를 포함한다. '통제'는 연인 관계에서 중요한 상호작용 중 하나로 자신이 의도하는 대로 관계를 이끌기 위해 상대방의 생각, 느낌, 혹은 행동을 자기 방식대로 규제하고 변화시키려는 욕구이다(Stets & Pirog-Good, 1990). 애착관계에서 불안을 갖는 개인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기준에 맞을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통제 행위를 한다(Mikulincer & Shaver, 2007). 강압적 통제란, 삶의 가장 친밀한 관계에서 정체불명의 복종 형태를 사용하는데 일상생활에서 배우자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다(Stark, 2007). 한국남성 배우자들은 외국인 아내 즉, 결혼이주여성에게 강한 의처증 증세를 보이며 자신의 아내를 엄격하게 통제하려 한다(이현,

2015). 이를 통해서 통제의 개념에는 의심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유기불안을 가진 사람의 상대에 대한 행동은 소유, 조종, 통제가 가장 두드러진다(Young, Klosko, & Weishaar, 2003). 학대 및 방임이 자주 발생하는 가정환경에서 자란 자녀는 이성과의 관계에서 불안정한 애착을 경험하고, 내적·외적 문제행동을 경험하기 쉽다고 설명한다(Bowlby, 1969). 수치심에서 비롯된 편집장애는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밖으로 투사하여 남에게 전가시키며 가혹하게 구는데, 어릴 적 받은 학대를 가해자와 자신을 동일시하여 자기가 받은 그대로 자녀나 배우자에게 재연한다(Bradshaw, 2013). 즉, 한 사람 안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학대를 행하는 자는 자존감이 낮으며 특히 아내를 학대하는 남성일수록 질투, 우울의 특징과 남의 비판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주명희, 2003).

다섯 번째 특징은 불안(anxiety)을 들 수 있다. 김현철(2017)은 일선에서 환자들이 호소하는 불안의 원인을 순위별로 정리했는데 1위가 '배우자 혹은 연인에 대한 의심'이라고 밝혔다. 불안하게 만드는 것 중 하나가 사랑받을 자격에 대한 의구심이라는 것이다. Young의 심리도식에서 유기/불안정 도식을 가진 경우 대상이 불안정하거나 신뢰할 수 없고, 변덕스럽다고 지각하거나 그들이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해서 자신을 버릴 것이라고 생각한다(Young, Klosko, & Weishaar, 2003). 이는 질투망상이 갖고 있는 불신이나 망상의 특성과도 관계가 있다. LeDoux(2006)는 심리적 트라우마에 대한 설명에서 주로 아동기에 경험한 초기방임은 불안과 같은 정서기억이 편도체에 저장되면서 일생을 통하여 정교해지며 활성화된다고 하였다. 유기불안을 가진 사람의 행동은 소유, 통제가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보인다(Young, Klosko, & Weishaar, 2003). 유기불안이 높은 개인일수록 대인관계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오남경, 2015). 이들은 가까운 사람들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끊임없이 생각하며, 자신을 떠나려고 하는 신호는 무엇이든 지나치게 경계하고, 질투와 경쟁심을 보이는 등 유기에 대한 지각은 때로 망상적인 수준에 가깝다 (Young, Klosko, & Weishaar, 2003). Young의 이론에 의하면 이들은 자신을 떠나려고 하는 신호는 무엇이든 지나치게 경계하고, 질투와 경쟁심을 보이며 배우자가 항상 거기 있는지 자꾸 확인하는 강박적인 초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특징으로는 투사(projection)가 있다. 투사는 직면하기 힘든 내적 욕구나 감정, 태도, 동기 등을 타인의 것으로 지각하는 현상으로 현실을 부인하고 왜곡하는 것이다(천성문 외, 2017). 편집증의 이해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투사 과정이다. 이는 상대를 의심하고 과잉 경계하여 자신이 맞다고 여김으로써 누군가를

신뢰하지 않으며 은밀한 비밀을 갖고, 착취나 학대가 두려워 먼저 타인을 이용한다 (Young, Klosko, & Weishaar, 2003). 즉, 부정하고 싶은 자기 자신에 대한 경멸이나 불만족을 외부로 투사하는 것이다(Bradshaw, 2013). 투사는 망상증후군에서 많이 발견되며, 부당한 의심이나 경계, 오해, 책임전가, 현실왜곡으로 나타난다(김재은 외, 1991). 편집성 성격을 지닌 사람은 자신의 적대감과 비판적 태도를 자각하지 못한 채, 오히려 타인은 믿을 수 없는 악한 존재라는 생각을 강화하는 것이다(권석만, 2018). Freud(1922)는 부정(不貞)에 대한 자신의 충동은 최소화하면서 배우자의 충동을 강조하는 질투심에는 한편으로, 이런 종류의 투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였다(Meissner, 2009에서 재인용).

3) 질투와 의심에 대한 성경적 이해

민수기 5장에는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경우인지, 아니면 질투의 영(the spirit of jealousy)이 남편에게 들어가 근거 없이 자기 아내를 질투하는 경우인지 판결하도록 하는 ‘의심의 법, 질투의 법(the law of jealousy)’이 나온다. 억울하게 의심을 받는 아내를 구제하고 의심이 들어 괴로워하는 남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보여진다. 14절을 보면, 아내가 더러운 행동을 한 것과 남편에게 ‘영’이 들어간 것을 견주어 말하고 있다. 아내가 정결하다면 문제는 남편에게 들어간 ‘영’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남편은 자신의 문제를 아내에게 있다고 지각하고 전가하는 ‘투사’가 나타나고 있다. 12절 이하를 보면 번역된 성경별로 배우자에 대한 ‘의심’을 ‘질투’와 같은 개념으로 보았는데 개역개정, 개역한글 등은 ‘jealousy’를 ‘의심’으로 KJV흠정역은 ‘질투’로 번역하였다.

의심과 같은 개념은 불신이다. 불신(distrust)이라는 개념을 일찍이 연구한 Deutsch (1960)는 불신과 비등한 개념인 의혹(suspicion)으로서 불신을 정의하였다. 즉, ‘의심’ ‘질투’ ‘불신’ ‘의혹’ 등은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상대를 믿지 않고 의심하는 불신의 특징은, 보복, 감시, 통제와 같은 기교를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증가시킨다(Lewicki, Mcallister, & Bies, 1998).

마가복음 7장 22절의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중 ‘질투’ 라고 되어있는 ‘evil eye’가 있다. 이것은 ‘질투’, ‘흘기는 눈’, ‘악한 눈’, ‘악한 시선’, ‘시기’ 등 성경들마다 다르게 번역되어져 있다. 같은 맥락으로 본 연구에서도 ‘질투’를 ‘의심’과 같은 의미로 보고 배우자나 연인과의 관계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정의하고자 한다.

편집증(paranoia)이란 용어는 다른 마음(beside mind)이란 뜻으로 사용되어 왔는데, 같은 의미로 개역개정과 KJV흠정역의 야고보서 1장 6절을 보면 '의심하는 것'과 '흔들리는 마음'은 같은 의미로 번역되어 있고, 이런 마음을 가진 경우 8절에서는 두 마음(double mind)을 품은 자로 불안정(unstable)하다고 되어있다.

이와 같이 성경을 통해 배우자에 대한 근거 없는 '질투'와 '의심'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이러한 질투는 '나쁜 영'과 연관되어있고 배우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투사'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의심하는 사람의 마음은 두 마음을 갖고 있어 불안정하여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게 된다.

4) 선행연구

질투망상과 관련된 척도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훈진, 원호택(1995)이 정상인으로부터 심한 편집망상에 이르기까지 연속선상에 존재하는 편집증을 연구하여 개발한 편집성척도(Paranoid Scale)가 있다. 진단명 보다는 심리적 현상을 중심으로 연구할 때 망상이나 편집증, 환각 등 중요한 현상들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검증하였다.

윤혜경과 오현숙(2018)은 편집성척도(Paranoid Scale)를 사용한 연구에서 편집성향을 가진 경우 수준에 따라 인지적 공감의 차이는 없었지만 정서적 공감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결론을 얻었는데 편집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에게서 받는 자비마저도 수용하지 못하고 타인과의 정서적 공유를 완전히 거부하는 식의 자기 지향적 공감만을 추구하였다고 한다. 공감은 결혼의 안정성에 중요한 요인이다. Jacobson과 Addis(1993)의 연구를 보면 성공한 부부들은 높은 정서적 관여와 자기표현을 하며 상대 배우자에 대해 수용적이고 공감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편집증을 가진 경우 공감능력이 부족하므로 부부갈등에 원인을 제공한다고 보여 진다.

질투망상과 관련해 편집성척도(Paranoid Scale)를 사용한 연구의 사례는 찾지 못하였다. '의심과 불신'이라는 측면에서 공통된 의미를 갖고는 있으나 이 척도는 일반적인 편집증에 관한 연구로써 부부나 상대 연인에게만 국한되어 나타나는 질투망상을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 진다.

또 다른 관련 척도로는 김영환 외(2019)에 의해 국내에서 표준화된 성격평가질문지(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PAI)안에 있는 망상척도가 있다. 망상의 특성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찾아내려는 경향등과 관련이 있다. 성격평가질문지의 하위척도는 과경계(Hypervigilance; PAR-H), 피해망상

(Persecution; PAR-P), 원한(Resentment PAR-R)으로 구성되어 있다(김영환 외, 2019). 이 하위특성들은 질투망상과는 차이가 있어 보인다.

또한 의심과 관련해서 심리도식 질문지(Young Schema Questionnaire-L3-Korean Version: YSQ-L3-K)안에 있는 불신/학대 척도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사람들이 이기적인 목적으로 자신을 해치고, 학대하고, 모욕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조종하고, 이용할 것이라고 왜곡한다(Young, Klosko, & Weishaar, 2003).

편집이나 망상과 달리 배우자나 파트너의 관계에 초점을 둔 연구들을 찾아보면, 이인재와 양난미(2020)의 관계중독에 대한 연구가 있고 우아미 등(2008)의 집착행동척도 개발이 있다. 또한 정자림과 이영호(2012)가 연구한 이성관계 간섭행동이 있다. 이러한 척도 연구들을 살펴보면 본 연구와 공통된 문항들이 보이지만 질투망상의 특성과는 달리 일반적인 이성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연구한 자료들이다.

학대에 대한 피해 배우자용 척도로는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실태조사에서 사용되는 통제 문항이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7개 통제 행동(controlling behavior) 설문지에 4개를 추가하여 11개 문항을 완성한 것이다. 이 척도는 ‘바람을 피운다고 자꾸 의심하고 비난하는 행동’ 등 질투망상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문항이 보이나 전반적인 파트너 통제와 관련해 피해를 본 경우에 한해 측정하는 도구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질투망상과 관련해 부부나 이성과의 관계를 측정하거나 피해를 측정하는 척도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편집성척도(Paranoid Scale)나 성격평가질문지(PAI)의 망상척도, 심리도식 질문지(YSQ-L3-K)의 불신/학대 척도 같은 도구들은 일반적인 불신과 의심으로 인한 지각에 관한 것으로 자신의 배우자나 연인이 다른 이성과 부정을 저질렀다고 의심하는 부부편집증의 경우 적용하는데 무리가 있다. 피해망상과 질투망상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연구자가 인터뷰 했던 부부편집증의 피해 배우자 중 두 명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도 배우자의 이런 병증에 대해 눈치라도 챌다면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저 나만 힘들 뿐이에요” 라고 호소했었다. 이처럼 질투망상은 관련된 생활영역 외에는 기능적인 손상이 없으며 뚜렷하게 이상하거나 기괴한 행동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권석만, 2018). 즉, 부부간에 한정되어 망상이 일어남으로 다른 사람은 알기 어려운 영역이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부부편집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척도 개발이 필요하다.

2. 연구방법

1) 연구 1: 예비요인 도출 및 문항 개발

(1) 조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미혼 및 기혼 커플간의 정서적 지원을 차단하고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질투망상성 척도를 개발하기 위함이다. 우선, 기초 예비 문항을 구성하기 위하여 문헌고찰과 기존 척도의 문항 참조, 연인 및 부부를 대상으로 개별면담과 개방형 설문 조사, 전문가 면담을 실시하였는데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자는 의치 증으로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성 5회기 대면 상담사례, 폭행한 50대 남성 12회기 대면 상담사례, 의부증으로 이혼위기에 있는 30대 여성 2회기 전화상담 사례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또한 질투망상 증상이 있는 남편 배우자를 둔 50대 피해 아내 3명과 심층 인터뷰를 하였고 개방질문을 통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질투망상의 증상이 어떠한지에 대한 자료 수집을 위해 경험적으로 질투망상 배우자로부터 피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중년의 기혼 여성 3인의 실제적인 경험을 인터뷰 하기 위해 연구목적 및 절차에 대한 안내를 하였으며 비밀보장을 약속하고 1:1로 한두 번 만남 후 차후에는 유선으로 여러 번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이며 배우자의 행동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대화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후로는 스크리닝(Screening)을 통과한 35세부터 75세 이하까지의 배우자 또는 애인이 있는 성인 남녀로 '배우자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1〉 스크리닝(Screening) 빈도분석 (N=103)

1. 스크리닝(Screening)	35세이상으로 배우자 혹은 연인 있음	103	100.0%
질문: 귀하는 배우자(또는 애인)의 이성관계나 정절에 대하여 의심을 한 적이 있습니까		빈도	퍼센트 케이스중%
	나는 여러 번 의심한 적이 있다.	74	51.0% 71.8%
2. 스크리닝 (Screening) (중복체크가능)	내 배우자(애인)는 나한테 몇 번 의심하지 말라고 말한 적이 있다.	45	31.0% 43.7%
	관련해 병원에서 진료나 처방을 받은 적이 있다	12	8.3% 11.7%
	관련해 경찰서에 간적이 있다.	5	3.4% 4.9%
	관련해 심리상담을 받은적이 있다.	9	6.2% 8.7%
전체		145	100.0% 140.8%

개방질문 설문지 안내에는 연구의 목적, 해당되는 연구대상자와 검사나 절차, 개인 정보의 보호,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연구를 통해 얻게 되는 이익, 연구책임자에 대한 정보 등을 기술하여 동의를 받았고 연구 참여자의 정보는 비실명으로 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였다. 온라인에 설문을 의뢰한 업체는 공신력 있는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연구의 목적과 특성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였다. 협의한 내용에는 응답할 대상자들을 모집할 때 연구의 목적을 속이거나 오해하지 않도록 직접적인 문구를 사용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에 자율적으로 연구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설문응답을 얻어 연구자에게 제공되었고 연구자는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였다.

본 조사의 특성상 질투망상 증상이 있는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 스크리닝(Screening) 과정을 거쳤다.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을 온라인에서 의도적으로 표집하고 예비문항을 제작하기 위해서였다. 우선, '나이가 35세 이상으로 배우자 혹은 연인 없음'에 해당할 경우 조사는 중단되도록 하였으며 '나이가 35세 이상으로 배우자 혹은 연인 있음'에 해당할 경우 다음 질문 단계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두 번째로, 내 배우자(또는 애인)의 이성 관계나 정절에 대하여 의심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의 질문에 '나는 여러 번 의심을 한 적이 있다', '내 배우자(애인)는 나한테 몇 번 의심하지 말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의부증, 의처증 관련하여 병원에서 진료나 처방을 받은 적이 있다', '의부증, 의처증 관련하여 경찰서에 간 적이 있다', '의부증, 의처증 관련하여 심리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 중 한 가지라도 응답한 경우에만 연구에 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내용은 <표 1>에 정리하였다. 그다음 절차로, 온라인 개방질문을 통해 배우자나 자신에 대한 생각을 기술하도록 하였다. 개방 질문의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개방질문 내용 (N=103)

질문: 당신의 생각을 써주십시오(한 문항에 여러 가지 답을 써주세요)
배우자(애인)가 바람을 핀다고 확신하는 이유나 의심과 관련된 나의 신념은 무엇인가
배우자가 어떠한 때 정절이 의심 되는가
배우자(애인)가 바람을 핀다면 나의 어떤 점 때문일 것 같은가
배우자(애인)가 바람을 핀다면 내 마음은 어떨 것 같은가
배우자(애인)에게 다른 이성이 있다고 의심이 들 때 나는 어떻게 행동 했는가

온라인 조사는 2020년 9월에 실시하였고 수집 기간은 대략 2주 이내였으며 무응답이나 불성실 응답자를 제하고 103명의 응답이 채택되었다. 응답자는 남성이 56명(54.4%), 여성이 47명(45.6%)이었으며, 연령은 40대(39.8%), 30대(35.9%)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군은 사무직이 73명(70.9%)으로 가장 많았다. 정신과 진료경험은 '없다'가 51명(30%), 우울이 32명(18.8%), 불안이 22명(12.9%)으로 나타났다. 질투망상이 우울, 불안과 가장 관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진료경험이 없다고 답한 이유는 배우자와의 관계 외에 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선행연구의 특성과도 관련이 있거나, 피해자나 이웃이 증상자를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의 2019년 가정폭력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의 정서상 이웃의 가정사에 관여하지 않을뿐더러 실제 피해 배우자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유는 '배우자의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한다고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 '자녀들을 생각해서' 등으로 집계되었다. 개방질문지에 응답한 103인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진료경험은 <표 3>, <표 4>와 같다.

<표 3> 인구통계학적 특성 요약 (N=103)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성	56	54.4%
	여성	47	45.6%
연령	30대	37	35.9%
	40대	41	39.8%
	50대	19	18.4%
	60대	5	4.9%
	70대	1	1.0%
스크리닝 (Screening)	35세이상으로 배우자 혹은 연인 있음	103	100.0%
	전체	103	100.0%

〈표 4〉 정신과 진료경험에 대한 빈도분석 (N=103)

질문: 아래와 관련하여 진료나 심리 상담,수용, 조사 등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중복체크 가능)	빈도	퍼센트	케이스 중 %
우울	32	18.8%	31.1%
불안	22	12.9%	21.4%
강박	14	8.2%	13.6%
편집증	3	1.8%	2.9%
의치, 의부증	6	3.5%	5.8%
공황장애	5	2.9%	4.9%
조현병	3	1.8%	2.9%
문항			
테이트폭력	3	1.8%	2.9%
가정폭력	3	1.8%	2.9%
망상	8	4.7%	7.8%
폭식, 거식증	2	1.2%	1.9%
히스테리	7	4.1%	6.8%
알콜, 마약, 그 외 중독	9	5.3%	8.7%
그 외 기타	2	1.2%	1.9%
없다	51	30.0%	49.5%
전체	170	100.0%	165.0%

(2) 분석 및 결과

수집한 내용을 정리한 결과, 다수의 응답으로 나타난 단어들을 기술하자면 ‘의심’, ‘경계’, ‘직감’, ‘추측’, 또는 ‘이상함’, ‘경제적인 무능’, ‘외모 콤플렉스’, ‘자신감 부족’, ‘핸드폰을 점검’ ‘감시하고 추적’, ‘추궁’, ‘모르침’, ‘활동 제한’, ‘불안’ 등이었다. 응답은 간략히 단어로 기술하거나 문장으로 작성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기술한 응답들을 간략히 살펴보면, 첫 번째 질문의 ‘배우자(애인)가 바람을 핀다고 확신하는 이유나 의심과 관련된 나의 신념은 무엇인가’에 대한 응답으로는 ‘나는 절대 속지 않고 살 것이다’, ‘내 것을 남이 훔치면 안 된다’, ‘속는 게 바보다’, ‘먼저 의심을 해야 한다’, ‘속은 다 드러내지 않아야’ 등이 있었다. 두 번째 질문인 ‘배우자가 어

떠할 때 정절이 의심 되는가'에 대한 응답으로는 '잡은 외출과 꾸밈', '늦거나 연락 안 됨', '핸드폰을 놓지 않음', '전화를 자주 안받음', '말의 앞뒤가 자주 바뀜', '친구를 자주 만남', '나를 무시함' 등이 있었다. 질투하는 이유에는 열등감과 같은 문항들도 눈에 띄었다. 예를 들면 '나보다 잘 나가고 인기가 많아서' 등이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응답이 가장 다양하여 많은 문항이 제작되었다. 세 번째 질문인 '배우자(애인)가 바람을 핀다면 나의 어떤 점 때문일 것 같은가'에 대한 응답은 '못생겨서', '돈을 못 벌어서', '쌓아 놓은 게 없어서', '못나서', '무능력' 등이었다. '배우자(애인)가 바람을 핀다면 내 마음은 어떤 것 같은가'에는 '상대에게 질투가 날 것', '다시 안 핀다고 해도 불안할 것', '미칠 것 같다', '죽고 싶다', '심장이 떨릴 것' 등이 있었다. 네 번째 질문인 '배우자(애인)에게 다른 이성이 있다고 의심이 들 때 나는 어떻게 행동 했는가'에 대한 응답은 '핸드폰을 점검', 교체 요청', '위치추적', '잡은 전화', '추궁', '돈을 안줌', '밤에 지켜봄', '시간 체크', '욕' '관찰' 등이었다.

이를 근거로 관련된 선행연구와 저서 그리고 DSM-5의 관련 장애 중 편집성 성격 장애와 망상장애의 진단기준을 참고하였다. 이후 상담심리학 교수 2명, 상담심리학 박사과정 4명과 함께 델파이 분석 과정을 거쳤고 여러 번의 협의를 통해 예비문항을 선정하였다. 질투망상의 요인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합의가 없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구성요인이 예측되었다.

예비문항 선정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토대로 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 정의한 질투망상의 구성개념과 하위요인의 개념에 수렴할 수 있도록 문항의 내용을 구성한다. 둘째, 중년의 배우자나 연인이 있는 한국의 남녀를 대상으로 한 척도개발이므로, 문화적 특성과 생활을 고려하여 문항의 내용을 구성한다. 셋째, 자기보고식 검사이기 때문에 문항을 이해하기 쉽고 명료하게 구성하며, 이중 부정문을 사용하지 않는다. 넷째, 예비문항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해 내용 타당도를 확인한 이후 선별한다.

연구자는 선정된 문항들이 질투망상을 잘 측정하고 있는지, 의미 전달은 분명한지, 단어 사용과 문법은 적절한지 등을 중심으로 수정하고 검토함과 동시에 내용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질투망상성의 하위 구성 요인은 편집, 열등감, 학대, 불안, 투사 다섯 개로 가정하였고 총 61문항이 선정되었다.

2) 연구2: 예비설문조사

(1) 조사대상 및 절차

연구1과 동일한 방법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대략 2주 이내였으며, 불성실 응답지는 데이터에서 제거되었고, 합당한 설문지는 208개가 채택되었다. 조사대상자 208명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 122명(58.7%), 여성 86명(41.3%)이었다. 연령대는 35~39세 57명(27.4%), 40대 89명(42.8%), 50대 50명(24.0%), 60대 11명(5.3%), 70대 1명(0.5%)이었다. 지역분포는 서울이 67명(32.2%)으로 가장 많았다. 학력은 대학교 졸업이 147명(70.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고등학교 졸업이 35명(16.8%)이었다. 직업은 사무직 92명(44.2%), 운수, 생산직 11명(5.3%), 프리랜서 13명(6.3%), 회사대표 및 자영업이 17명(8.2%), 전문직으로 교사, 변호사, 약사, 의사 등이 14명(6.7%), 전업주부가 29명(13.9%), 농수산업 2명(1.0%), 서비스, 판매직이 14명(6.7%), 무직이 9명(4.3%)이었고 그 외는 학생과 기타였다. 연봉은 3,000만원 이상~4,000만원 미만인 51명(24.5%)으로 5,000만원 이상과 같았다. 자녀수는 2명인 경우가 100명(48.1%)로 가장 많았다. 종교는 무교가 111명(5.4%), 기독교와 불교는 36명(17.3%)이었다. 결혼여부는 기혼이 177명(85.1%), 미혼이 24명(11.5%), 별거나 이혼상태는 7명(3.4%)이었다. 결혼기간은 11년~20년이 64명(30.8%)로 가장 많았다. 정신과 진료경험은 '없다'가 151명(28.1%)이었고 우울이 36명(13.8%), 불안이 23명(8.8%)이었다.

(2) 측정도구

61문항 다섯 개 요인(편집, 열등감, 학대, 불안, 투사)을 가정하여 개발한 질투망상성 척도가 적절하게 개발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문항이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지를 응답하는 척도화 방법으로 Likert의 총화평정법을 사용하였다. '전혀 아니다'를 1점, '매우 적절하다'를 5점으로 구성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각 변인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도록 점수화 하였다. 역산채점 문항은 넣지 않았다.

(3) 분석방법 및 결과

① 탐색적 요인분석

질투망상성 척도의 구성개념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FA: 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 방법으로 공통요인추출법 중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였으며, 요인 회전은 요인들이 상호 독립적이라는 제한조건을 두지 않는 사각회전 방식 중 직접 오블리민(direct oblmin)방

식을 사용하였다. 요인 수 결정을 위해 고유치와 스크리 도표, 각 문항의 공통분, 요인의 수에 따른 적합도 지수, 해석 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하였다. 평균과 표준편차가 극단적일 경우 변별력을 떨어뜨리므로 삭제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어 각 문항의 평균이 1.5에서 4.5, 표준편차가 .75를 기준으로 극단적 문항들은 제거하였다(Meir & Gati, 1981). 각 문항에 부하된 모든 요인계수의 제곱합인 공통성은 송지준(2019)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40 미만일 경우 문항이 구성개념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최종 문항 선정에 앞서 위의 기준과 함께 질투망상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이론, 전문가들의 피드백과 문항 분석 결과를 연구자가 종합 고려하였다.

예비문항의 정규 분포 확인을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살펴본 결과, 왜도는 $-.291 \sim .927$, 첨도는 $-.988 \sim .104$ 에 분포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KMO 값이 .923, Bartlett의 유의도 검증이 유의수준($p < .001$)으로 기각되어 자료가 요인분석하기 적합하였다. 고유값 1을 기준으로 고정된 요인 수를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와 요인추출 시 내용분석을 통해 가정하였던 다섯 개의 요인구조가 동일하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고정된 요인 수를 5로 지정하였을 경우 요인적재량이 적절하지 않았고 변인의 특성이 혼재되어 나타났다. 네 개의 요인으로 지정하였을 때 가장 적합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요인 수 결정을 위해 스크리닝 도표를 살펴보고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적합도 지수를 비교하였다.

제거된 문항들을 살펴보면, '배우자(애인)는 내가 어울리는 사람들을 싫어한다'는 투사요인으로 예측하였으나 편집요인으로 분류되어 삭제하였고 '배우자(애인)가 떠난다면 대신할 다른 사람이라도 찾고 싶다'는 열등감요인이나 불안요인으로 예측하였으나 편집요인으로 분류되어 삭제되었다. '불안하면 배우자(애인)와 통화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전화한 적이 있다'는 학대요인으로 가정하였으나 열등감요인에 묶여 제거하였다. '배우자(애인)는 나 몰래 딴 곳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것 같다'는 편집요인으로 분류될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열등감요인으로 묶이었다. '나는 성적으로 부적절한 생각을 하곤 한다'는 투사요인으로 예측하였으나 열등감요인으로 분류되어 제거되었다. '배우자(애인)에게서 술, 담배, 일, 놀이, 취미 등 과한 것 좀 그만하라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비약과 의심이 심하다는 소리를 들었다', '배우자(애인)는 나를 통제하고 조종하려고 한다', '나는 실제 바람을 폈거나 피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투사요인으로 분류될 것으로 가정하였으나 학대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40이하로 요인계수가 낮아 제거되었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요인계수를 비롯한 문항분석 결과 9문항이 축소되었고 본 조사를 위한 네 요인 52문항이 선정되었다. 문항의 특징을 살펴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

합하여 요인 명을 정하였다.

② 신뢰도(Cronbach's α)

신뢰도의 검증은 내적일관성 방법의 Cronbach's α 계수를 통해 실시하였다. 하위 요인별로 신뢰도를 산출하였고 문항 간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문항들이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구체적으로 각 요인별 신뢰도(Cronbach's α)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요인은 질투망상과 가장 관련이 깊은 '편집(17문항)'요인이며 신뢰도(Cronbach's α)는 .95이다. 두 번째 '열등감(14문항)'요인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0이다. 세 번째 요인은 '학대(15문항)'로써 배우자나 애인의 정절을 의심하는 경우 행하는 실제 태도이다. 신뢰도(Cronbach's α)는 .92이다. 마지막 네 번째 요인은 '불안(6문항)'으로 분류되었으며 신뢰도(Cronbach's α)는 .87이다. 질투망상성 전체의 내적 일치도 계수는 .96이다. 예비조사에 대한 신뢰도(Cronbach's α)는 <표 5>과 같다.

<표 5> 예비조사 신뢰도(Cronbach's α) (N=208)

구 분	Cronbach's α
편집	.952
열등감	.901
학대	.921
불안	.866
질투망상성 전체	.960

1) 연구3: 본 설문조사

(1) 조사대상 및 절차

연구2와 동일한 방법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대략 2주 이내였으며, 불성실 응답지는 데이터에서 제거되었고, 합당한 설문지는 459개가 채택되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질투망상성은 남성에게서 더 높은 증상이 보인다. 이점을 감안해 남성이 좀 더 많이 선택하도록 온라인 설문업체에 설정을 부탁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성별의 경우 남성 259명(56.4%), 여성 200명(43.6%)이었다. 성인의 연령대는 30대 115명(25.1%), 40대 216명(47.1%), 50대 105명(22.9%), 60대 20명(4.4%), 70대 3명(0.7%)이었다. 학력의 경우 중졸 3명(0.7%), 고졸 62명(13%), 대학교 재학 및 졸업 335명(73.0%), 대학원 이상 59명(12.9%)이었다. 직업의 경우 사무직 253명(55.1%), 운수, 생산직 22명(4.8%), 프리랜서 22명(4.8%)이었다.

8%), 회사대표 및 자영업 31명(6.8%), 전문직(약사, 의사, 변호사, 교사) 39명(8.5%), 전업주부 37명(8.1%), 농수산업 2명(0.4%), 서비스, 판매직 27명(5.9%), 무직 5명(1.1%), 학생 및 취업준비 공부 2명(0.4%)이었다. 연봉은 2000만원 미만 47명(1.2%), 2,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73명(15.9%), 3,000만원 이상~4,000만원 미만 103명(22.4%), 4,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71명(15.5%), 5,000만원 이상 142명(30.9%), 소득없음 23명(5.0%)이었다. 자녀수는 자녀 없음이 98명(21.4%), 1명 129명(28.1%), 2명 194명(42.3%), 3명 이상은 38명(8.3%)이었다. 종교는 기독교 109명(23.7%), 불교 63명(13.7%), 천주교 32명(7.0%), 무교 245명(53.4%), 기타 10명(2.2%)이었다. 결혼여부는 미혼이 63명(13.7%), 기혼 380명(82.8%), 별거나 이혼 16명(3.5%)이었다. 결혼(연애)기간은 5년 이하 87명(19.0%), 6년~10년 92명(20.0%), 11년~20년 166명(36.2%), 21년~30년 86명(18.7%), 31년 이상 28명(6.1%)이었다. 정신과 진료경험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는 '없다'가 332명(57.3%), 우울이 68명(11.7%), 불안이 57명(9.8%) 순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① 질투망상성 척도(Jealousy Delusion Scale: JDS)

연구 1과 연구 2를 거쳐서 개발된 질투망상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네 개 요인 5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사대상자에게 각 문항이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아니다, 5점: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평정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질투망상증상이 많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예비조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96으로 확인되었다.

② 성격평가질문지(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PAI): 망상척도

Morey(1991)가 개발하고, 김영환 외(2017)가 국내 표준화한 PAI를 사용하였다. PAI는 정신 병리를 측정, 평가하기 위한 동질적인 검사도구로서 문항을 중복시키지 않아서 변별 타당도가 높고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증상이나 행동의 강도나 지속 기간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구성타당화 방법을 사용하여 개발되었다는 측면에서 심리측정적으로 우수한 검사로 평가받고 있다(Helmes, 1993: 김영환 외, 2017에서 재인용). 이 검사는 총 344문항, 4개의 타당성 척도, 11개의 임상척도, 5개의 치료고려척도, 2개의 대인관계척도 등 총 22개의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형 성격평가질문지(PAI)의 내적 합치도는 비일관성, 저빈도, 약물문제 척도를 제외한 나머지 척도는 .60에서 .88, 전체 22개 척도의 중앙치는 대학생과 성인의 경우 각각 .77, .76,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비일관성 과 저빈도 척도를 제외하고 .77에서 .91이었

다(김영환 외, 2017). 본 연구에서는 PAI의 임상척도 중 망상(Paranoia, PAR/24)척도만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찾아 내리는 경향등과 관련이 있다(김영환 외, 2019). 하위척도는 과경계(Hypervigilance; PAR-H), 피해망상(Persecution; PAR-P), 원한(Resentment; PAR-R)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81로 나타났다.

③ 편집성척도(Paranoid Scale: PS)

이훈진과 원호택(1995)의 편집성척도는 Fenigstein과 Vanable(1992)이 개발한 20 문항을 우리나라 피험자를 대상으로 타당화한 것이다. 총 20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형 검사로 되어 있으며, 5점 척도 상에서 응답하도록 되어 있어, 점수가 높을수록 편집성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이훈진과 원호택이 보고한 척도의 내적 일관성(α)은 .91이었으며, 반분신뢰도는 .87, 내적합치도(Cronbach α)는 .88이었고, 요인분석에서는 전체 변량의 28.4%를 설명하는 단일 요인이 추출되었다(이훈진, 원호택, 1995). 본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93으로 나타났다.

④ 이화방어기제검사(Ewha Diagnostic Test: EDT): 투사척도

이화방어기제검사는 김재은 외(1991)가 개발한 검사로 한국인 특유의 적응방식과 방어기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표준화된 질문지형 검사도구이다. 이 검사는 한국인의 독특한 문제해결 방식과 적응양식, 방어기제가 포함되어 있는 전래 속담을 기초로 제작되었다(김재은 외, 1991). 20개의 방어기제 척도와 각 척도마다 10문항씩 총 20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문항에 대한 응답방식은 각 문항에 대하여 피검자 자신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전혀 아니다'(1점)에서 '아주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척도의 반분신뢰도는 회피척도(.58)를 제외한 나머지 척도에서 .66에서 .88로 나타났으며, 재검사 신뢰도는 척도 20개 모두 .72이상의 양호한 수준으로 보고되었다. 투사는 망상증후군에서 발견되며, 부당한 의심이나 경계, 오해, 책임전가, 현실왜곡이 나타난다(김재은 외, 1991). 이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투사척도 10문항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85로 나타났다.

⑤ 심리도식 질문지(Young Schema Questionnaire-L3-Korean Version: YSQ-L3-K): 유기척도

Jeffrey E. Young이 만든 YSQ(Young Schema Questionnaire)한국어판 심리도식 질문지 확장형(YSQ-L3-K)은 총2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초기 부적응도식을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 심리도식은 단절 및 거절, 손상된

자율성 및 손상된 수행, 손상된 한계, 타인-중심성, 과잉경계 및 억제 등의 5개의 범주로 나뉘며 하위 범주 총 18개로 나뉜다. Schmidt, Joiner, Young 및 Telch(1995)는 Young 도식 설문지의 심리측정적 속성에 대한 최초의 포괄적인 구조조사를 실시했다. 연구 결과, 각 초기 부적응 도식의 알파 상관계수는 .83(융합/미발달된 자기)에서 .96(결함/수치심)의 범위에 속했으며, 비 임상표본에서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50에서 .82의 범위에 속했다. 본 연구에서는 단절 및 중요한 타인과의 연결이 불안정하다고 지각하는(Young, Klosko, & Weishaar, 2003), 유기/불안정(Abandonment/Instability)도식에 대한 17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95로 나타났다.

⑥ 자존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S)

Rosenberg(1965)가 개발, 이훈진과 원호택(1995)이 번안한 것으로 단일 요인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리커트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약간 그렇다' 3점, '자주 그렇다' 4점, '항상 그렇다' 5점) 형식이다. 원호택과 이훈진(1995)의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 계수(Cronbach's α)는 .89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87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및 결과

① 구성개념타당도 검증: 탐색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KMO값은 .957, Bartlett의 유의도 검증이 유의수준 $p < .001$ 로 기각되어 자료가 요인분석하기 적합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해 우선 질투망상성 척도의 네 개 요인을 지정하고 52개 문항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구조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패턴행렬 결과 해당 요인과의 요인계수가 낮은 .30이하의 문항은 제거하였다.

'배우자(애인)와의 문제를 제외하면 나의 사회생활은 아무 문제가 없다'의 문항은 편집요인에서 낮은 계수를 나타냈고, '의심될 때 배우자(애인)의 행동을 모른 척 한 채 가만히 주시하고 관찰한 적이 있다'는 예비조사에서 열등감요인 이었으나 편집요인으로 바뀌어 분류되었다. '바람피우는 것 같아 배우자(애인)에게 핸드폰 번호를 바꾸라고 한 적이 있다'의 문항은 예비조사에서 편집요인으로 나타났으나 학대요인으로 바뀌었을 뿐 아니라 낮은 요인계수를 나타내어 제거되었다. 요인계수가 낮은 두 문항을 삭제하여 본 조사를 통해 최종 50문항을 확정하였다. 네 요인의 요인별 문항 수는 편집 18, 열등감 11, 학대 15, 불안 6문항이다. 본조사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본 조사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N=459)

문항	요인 패턴 행렬 ^a			
	편집	열등감	학대	불안
q15 늦거나 외출이 잦은 건 배우자(애인)가 다른 이성을 만나기 때문이다	.745	-.076	-.154	-.020
q29 부적절한 배우자(애인)로 인해 내가 오히려 피해자이다	.728	.088	.000	-.066
q1 배우자(애인)가 이성관계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	.720	.038	-.061	-.110
q20 배우자(애인)의 부정이 드러나지 않는 건 증거를 잡지 못해서다	.702	.106	-.121	-.090
q46 배우자(애인)의 외도를 직감으로 안 적어 있다	.698	-.066	.066	-.005
q28 말의 앞뒤가 자주 바뀌는 건 배우자(애인)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이다	.693	.176	.112	.061
q45 배우자(애인)의 모든 행동 뒤엔 숨겨진 동기가 있어 보인다	.675	.131	-.013	.110
q2 연락이 안 되는 건 배우자(애인)가 다른 이성과 같이 있기 때문이다	.673	.063	-.146	-.015
q35 배우자(애인)가 PC나 핸드폰을 자주 보거나 숨기는 건 바람피운다는 증거다	.623	-.038	.095	.209
q9 나와 잠자리를 거부하는 건 만족을 주는 다른 상대가 있기 때문이다	.623	.029	-.129	-.032
q47 배우자(애인)의 상대로 추측되는 사람이 있다	.622	-.106	-.320	-.088
q21 배우자(애인)가 작은 소리로 다른 이성과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621	.142	.115	.099
q10 배우자(애인)가 정결하다고 밝혀져도 의문은 남을 것 같다	.566	.004	-.076	.085
q11 의심될 때 배우자(애인)의 행동을 모른 척 한 채 가만히 주시하고 관찰한 적이 있다	.553	.125	.147	.246
q27 배우자(애인)에게 속거나 당하지 않기 위해 조심하고 경계해야 한다	.551	-.016	-.105	.108
q49 배우자(애인)가 나를 무시하는 건 다른 상대가 생겨서 일 것이다	.541	.106	-.205	.109
q23 내가 동성애적 경향이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해 본 적이 있다	.474	-.043	-.011	.169
q44 내 아이가 내 친자 일까 의심한 적이 있다(혼외 자식을 걱정한 적이 있다)	.469	.048	-.134	.179
q42 나는 스펙이 부족해서 초라한 느낌이 든다	.056	.787	.075	-.027

문항	요인 패턴 행렬 ^a			
	편집	열등감	학대	불안
q18 나는 다른 사람만큼 이루어 놓은 게 없다	.074	.752	.154	.044
q41 나는 일, 성취에서 다른 사람보다 무능하다	.009	.716	-.236	-.112
q19 나는 다른 사람보다 경제력이 부족하다	.081	.709	.164	-.074
q48 나는 목표를 잘 이루어 내지 못 한다	-.023	.670	-.124	-.008
q37 나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엄두가 나지 않고 막막하다	.007	.636	-.043	.146
q34 나 자신이 사랑 받을 가치가 있다는 확신이 없다	.044	.561	-.280	.033
q14 내 외모는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	.088	.484	-.163	-.044
q22 나는 대인 관계 기술이 남보다 뛰어나지 못하다	-.157	.444	-.099	.148
q40 배우자(애인)가 보기에 나는 성적으로 매력 없다	.124	.437	-.211	.018
q43 나는 거절당할까 봐 희생하며 맞추고 살았다	.254	.394	.016	.056
q3 배우자(애인)가 잠잘 때 지키거나 잠을 안 깨운 적이 있다	.078	-.028	-.762	.041
q26 배우자(애인)에게 녹음, 미행, 위치추적, 공유 중 시도한 것이 있다	.072	.024	-.708	.018
q50 의심이 들면 배우자(애인)를 무시하거나 냉대하게 된다	.143	.132	-.647	-.162
q4 배우자(애인)에게 친구들과 연락하거나 만나지 못하게 한 적이 있다	-.010	-.017	-.642	.250
q8 배우자(애인)가 의심스러울 때면 잠자리를 하자고 한 적이 있다	.129	.026	-.586	.101
q33 나는 배우자(애인)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다	.343	-.107	-.523	-.010
q16 배우자(애인)가 의심스러워 추궁한 적이 있다	-.057	.160	-.507	-.066
q31 배우자(애인)의 외출, 귀가 시간 등을 체크한 적이 있다	.019	-.020	-.466	.333
q5 배우자(애인)와 나 사이에 해결할 일이 생겼을 때 수용적인 태도로 상의하지 않았다	.044	.125	-.455	.063
q30 배우자(애인)의 일, 취미, 모임, 활동 중 못하게 한 것이 있다	.093	-.098	-.446	.317

문항	요인 패턴 행렬 ^a			
	편집	열등감	학대	불안
q12 의심이 되면 배우자(애인)에게 욕이나 비난, 물리적 공격을 한 것이 있다	.393	-.013	-.445	-.053
q39 배우자(애인)에게 생활비나 돈을 안 준 적이 있다	.103	.174	-.426	-.020
q25 배우자(애인)의 이메일이나 핸드폰을 점검한 적이 있다	.068	.291	-.387	.019
q36 배우자(애인)가 외출 시 꾸미는 외모나 옷차림을 참견한 적이 있다	.009	.134	-.385	.261
q38 배우자(애인)의 행동을 감시한 적이 있다	.272	.120	-.361	.058
q32 배우자(애인)가 다른 이성과 친하면 불안하다	.062	.060	.008	.756
q6 배우자(애인)가 다른 이성을 칭찬하면 질투가 난다	.030	.077	.025	.755
q7 모임에 가서 배우자(애인)가 나 말고 다른 사람과 어울리면 기분이 나쁘다	.224	.061	-.068	.548
q17 배우자(애인)가 다른 사람과 통화하면 신경 쓰인다	.336	.040	-.100	.513
q13 나와 있을 때 배우자(애인)가 문자나 전화를 받으면 민감해진다	.300	-.090	-.154	.359
q24 배우자(애인)가 안 보이면 마음이 불안하다	.159	.069	-.250	.346
신뢰도(Cronbach α)	.944	.891	.911	.853
전체 신뢰도(Cronbach α)	.961			

② 신뢰도(Cronbach's α)

질투망상성 척도의 각 하위요인에 속한 문항들이 얼마나 일관성 있게 하나의 동일한 개념을 평가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내적합치도인 Cronbach의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각 요인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편집 .94, 열등감 .89, 학대 .91, 불안 .85로 나타났다. 질투망상성 전체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6으로 나타났다.

③ 구성개념타당도 검증: 확인적 요인분석

요인구조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시한 결과 모형의 부합도 지수는 다음과 같다. $\chi^2=701.36$, $df=318$, $p<.001$ 이었으며, RMSEA는

.050으로 수용 가능한 좋은 부합도를 보였고, NFI는 .880, IFI는 .930, TLI는 .920 그리고 CFI는 .930으로 .900 이상이기엔 네 개 요인 구조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배병렬, 2017). 네 개 요인으로 구성된 모형을 단일요인 모형과 비교하였을 때, 모든 적합도 지수에서 네 개 요인 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네 개 요인으로 구성된 질투망상성 척도의 요인구조가 지지됨을 확인하였다.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4요인 모형의 부합도 지수

	부합도 지수						
	χ^2	df	NFI	IFI	TLI	CFI	RMSEA
4요인 모델	701.36	318	.880	.930	.920	.930	.050
1요인 모델	5454.86	315	.610	.712	.650	.660	.090

④ 상관분석

질투망상성 척도의 총점과 하위구성요인들 간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해 분석을 실시한 결과 계수 값은 유의미하였다. 하위요인과 총점 간 상관은 .162의 낮은 정도에서 .706으로 비교적 높은 상관(조복희, 2010)을 보였다. 하위요인 간의 상관은 .241에서 .514로 중간정도의 상관을 나타냈다. 편집과 학대는 ($r=-.563$, $p<.01$)으로 가장 높은 상관계수로 부적관계를 보였다. 학대를 함으로 배우자의 정절에 대한 의심을 줄이고자 하는 강박행동을 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열등감과 불안은 ($r=.241$, $p<.01$)로 낮은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열등감이 많다고 하여 불안이 높은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학대와 불안은($r=-.348$, $p<.01$)로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 또한 학대를 했을 때 불안이 해소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열등감과 편집은 ($r=.392$, $p<.01$)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불안과 편집 또한 정적 상관($r=.514$, $p<.01$)을 나타냈다. <표 8>는 질투망상성 척도의 총점과 하위구성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산출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 8〉 질투망상성 척도의 하위요인간 상관계수 (N=459)

	편집	열등감	학대	불안	질투망상성 전체
편집	1				
열등감	.392**	1			
학대	-.563**	-.398**	1		
불안	.514**	.241**	-.348**	1	
질투망상성 전체	.706**	.646**	-.162**	.728**	1
Cronbach's α	.944	.891	.911	.853	.961

** p<.01

⑤ 구성개념타당도 검증: 수렴타당도, 판별타당도

질투망상성 척도와 하위요인간의 수렴과 판별정도를 상관관계를 통하여 검증하였다. 수렴타당도(converge validity)는 같은 구인을 측정하는 도구 간에는 높은 상관이,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는 낮은 상관이 발견되어야 한다(김형준, 유상현, 2019). 질투망상성 총점과 하위요인과의 상관관계를 구한 값을 살펴보면, 편집은($r=.706$, $p<.01$), 열등감은($r=.646$, $p<.01$), 불안은 ($r=.728$, $p<.01$)로 모두 높은 상관을 나타냈으나 학대요인은 낮은 상관($r=-.162$, $p<.01$)을 나타냈다. 네 요인 모두 상관관계가 0.01수준에서 유의하여 수렴타당도가 확인되었다.

요인 간 상관관계를 통해 판별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본 척도의 타당도를 밝히기 위해 하위요인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어야 하나 각 하위요인 간 상관이 지나치게 높으면 변별타당도의 증거가 취약하다(조복희, 2010). 가장 높은 편집과 학대는 ($r=-.563$, $p<.01$)중간 정도의 상관을 보여 변별타당도를 검증하기에 충분하였다. 전체적으로 질투망상성의 요인 간에는 적절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었고 요인 간 구별이 판이하여 이로써 판별타당도가 검증되었다.

수렴 타당도는 표준화 요인부하량이 유의하고 개념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가 .70이상인 경우가 좋고, 판별 타당도는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값이 잠재변수들 간 상관계수의 제곱값(ρ)보다 높을 때 판별타당도가 있다고 본다(배병렬, 2017). C.R(critical ratio)은 모두 유의하였으며 표준화요인부하량은 .52에서 .81사이로 모두 .50이상으로 나타나서 양호하였고 개념신뢰도의 값은 .83에서 .94의 값을 보였기에 모두 수렴타당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Bagozzi,

Yi, & Phillips, 1991). 배병렬(2017)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평균분산을 추출한 값으로 AVE는 모두 0.5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편집요인은 0.57, 열등감은 0.54, 학대는 0.51, 불안은 0.55였다. 이로서 수렴타당도가 검증되었다.

다른 개념간의 상관계수의 제곱값(ϕ^2)은 모두 AVE값보다 작게 나타났다. 따라서 판별타당도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 판별타당도 검증에 대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판별타당성 검증(2) (N=459)

	경로	상관계수	S.E.	2*S.E	-	+
편집	<--> 열등감	.53	.04	.08	.45	.61
편집	<--> 학대	.75	.05	.1	.65	.85
편집	<--> 불안	.74	.05	.1	.64	.84
열등감	<--> 학대	.57	.04	.08	.49	.65
열등감	<--> 불안	.43	.04	.08	.35	.51
학대	<--> 불안	.65	.05	.1	.55	.75

⑥ 준거 타당도 검증

본 검사의 준거관련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준거변인들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질투망상성의 총점 및 네 개 하위요인과 망상척도(PAI), 편집성척도(PS), 이화방어기제검사(EDT)의 투사척도, 심리도식 질문지(YSQ-L3-K)의 유기척도, 자존감척도(RSES) 등 준거변인과의 상관관계는 대부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불안요인과 자존감척도(RSES)($r=.032$, $p<.01$)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 개의 준거변인과 질투망상성 총점과의 상관관계는 모두 유의하였다. 망상척도(PAI)와는 낮은 정적 상관관계($r=.169$, $p<.01$)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과경계, 피해망상, 원한을 측정하는 망상척도(PAI)의 특성과 배우자에게만 한정되어 증상이 나타나는 질투망상만의 특성은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이화방어기제검사(EDT)의 투사척도는 연구2에서 제거되었던 투사요인과 달리 높은 정적 상관($r=.535$, $p<.01$)을 보였다. 예측대로 자존감과는 부적상관을 보였다. 열등감요인은 자존감척도(RSES)와 가장 크게 부적상관($r=-.715$, $p<.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열등감과 자존감은 반대의 개념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불안요인과 망상척도(PAI)또한 유의하나 낮은 정적 상관($r=.176$, $p<.01$)을 나타냈다. 망상이 있다고 불안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된

다. 학대요인은 자존감척도(RSES) 외에는 모든 준거변인들과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학대의 행위를 하였을 때 오히려 자존감이 올라가며 망상이나 편집, 투사, 유기감이 사라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대로 망상증상과 도파민은 관계가 있다. 중독행동에서의 보상경험은 강력한 정서적 기억을 포함하는데 뇌 변연계의 도파민 경로를 통해 일상적인 다른 보상과 쾌감보다 훨씬 더 강력한 쾌감을 수반한다(Nestler, 2005). 이로 보건데, 배우자나 연인을 학대하는 행위가 보상경험을 주어 쾌감과 중독을 일으키고 쾌감의 지속을 위해 그 행위가 반복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질투망상성 척도의 준거관련 타당도를 입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타 준거변인들과 질투망상성 총점의 상관관계 및 각 요인과의 상관분석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준거변인과의 상관분석 결과 (N=459)

	망상척도 (PAI)	편집성척도 (PS)	이화방어기 제검사(EDT) 투사	심리도식 질문지 (YSQ-L3-K) 유기	자존감척도 (RSES)
질투망상성 전체	.169**	.350**	.535**	.505**	-.381**
편집	.394**	.488**	.494**	.561**	-.236**
열등감	.381**	.500**	.578**	.619**	-.715**
학대	-.630**	-.624**	-.466**	-.631**	.257**
불안	.176**	.304**	.420**	.418**	-0.032
평균	2.87	2.69	2.91	2.57	3.07
표준오차	.878	.960	.989	1.012	.952

** p<.01

III. 닫는 글

1. 논의

지금까지 본 연구는 미혼, 기혼 커플을 위한 질투망상성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세 차례의 조사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50문항 네 개의 요인을 확정하였다. 먼저, 이론적으로 국내외의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질투망상의 정의와 구성개념을 탐색하고 사전인터뷰와 개방질문지를 통해 이론과 경험을 반영하는 예비문항을 구성하였다. 전문가의 협의를 거쳐 91문항에서 다시 77문항으로 축소되었고, 3차 협의를 통해 61문항을 선정하고 다섯 개 요인을 가정하였다. 이후,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52문항이 도출되었으며 네 개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본 조사를 실시해 2문항이 제거되어 50문항으로 최종 확정되었으며,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분류된 네 개의 요인 모형의 부합도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서 척도의 구성타당도가 입증되었다. 또한 상관관계를 통해 각 하위요인이 질투망상성 전체에 수렴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하위 요인 간에는 판별됨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질투망상과 관련이 있는 성격평가질문지(PAI)의 망상척도와 편집성척도(PS), 이화방어기제검사(EDT)의 투사척도, 심리도식 질문지(YSQ-L3-K)의 유기척도, 자존감척도(RSES) 등 준거변인과의 유의한 상관을 통해 수렴 타당도, 준거 타당도가 입증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인 및 부부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질투망상성 척도의 문항을 개발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한 결과, 편집, 열등감, 학대, 불안의 네 개 요인 50문항이 제작되었다. 각각의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첫 번째 요인은 '편집'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질투망상이 발병된 개인은 편집성 성격이 가장 많았다. 두 번째 요인은 '열등감'으로, 이는 애정 질투와 편집증과 관련이 있었으며 불안을 유발하는 요인이기도 하였다. 세 번째 요인은 '학대'이다. 즉, 질투망상은 학대와 같은 가정폭력과 관계가 깊었다. 학대 요인에는 통제에 해당하는 문항들이 많이 포함되었으나 통제 외에도 다른 문항들을 포괄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내용분석 시 '학대'라는 요인으로 명명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연구자들은 판단되었다. 네 번째 요인은 '불안'이다. '분리불안'이나 '유기불안'으로 명명해야 맞을 듯한 문항도 있었으나 내용분석 결과 함께 묶인 다른 문항의 특성상 '불안'으로 명명하였다. 특징을 살펴보면, 배우자나 애인의 행동에 대한 민감함이나 불안한 마음, 질투심 같은 정서가 담겨있었다.

배우자나 연인에 대한 질투망상은 편집증과 관련이 많으며, 망상적 특징을 갖고 있

다. 한때 피해자였던 자신의 경험들이 확대하는 가해자로 변형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자신 안에 있는 심리적 특성들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전가하는 투사의 기제를 보이기도 하고, 동시에 분리되거나 버려짐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었다. 자존감이 낮은 경우에는, 질투망상의 증상이 다소 심각해질 수 있는데 질투는 신뢰하지 못하는 의심과 같은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편집, 열등감, 학대, 불안의 요소들이 질투망상의 하위요인으로 검증되었다.

둘째, 질투망상성 척도의 신뢰도와 구성개념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 및 수렴 타당도, 판별 타당도를 통하여 개발된 척도의 구성개념이 타당한지 검증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GFI .919, TLI .909, CFI .919, RMSEA .047으로 양호한 적합도를 보여주었다. 이는 각각의 하위요인이 상호적이면서, 각 하위요인을 통합할 수 있는 공통요인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수렴타당도는 모든 관측변수의 표준화 경로계수 값이 .52에서 .81의 범위에 속하여 .50이상으로 나타났기에 Bagozzi와 Yi, & Phillips(1991)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 각각의 개념 신뢰도에서 편집 .944, 열등감 .891, 학대 .911, 불안 .853로 나타나 기준치인 .7을 초과(배병렬, 2017)하여 타당한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분산추출지수(AVE)값이 모든 요인 간 상관계수의 제곱값(ρ^2)을 상회하였기에 개념간의 판별 타당도도 확인할 수 있었다. 요인분석과 수렴타당도 분석 결과로 최종 확정된 네 개 요인 50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편집, M=2.81, SD=1.02, 열등감, M=2.75, SD=.99, 학대, M=2.32, SD=1.04, 불안, M=3.12, SD=1.05로 나타났다.

셋째, 다양한 준거변인들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준거관련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자존감척도(RSES)($r=.032$, $p<.01$)와 질투망상성(JDS)의 하위요인인 불안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변인 총점간의 상관관계는 자존감척도(RSES)뿐만 아니라 그 외 다른 척도 또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학대요인은 자존감척도(RSES)를 제외하고 모든 준거변인들과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 질투망상성 척도의 준거관련 타당도를 입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혼, 기혼 커플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투망상을 측정하기 위해 유용한 척도를 개발하였다. 그동안 부부편집증에 대한 연구가 다소 미비하여 질투망상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로운 측정도구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질투망상에 대한 타당도를 갖춘 척도를 개발함으로써 커플 상담에서 실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둘째, 스크리닝(Screening)을 통해 질투망상 증상이 있는 피험자를 선별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항을 제작하기 위한 개방질문부터 본 조사에 이르기까지 연구의 필요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만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성인 남녀 35세 이상 75세 이하이면서, 배우자 혹은 연인이 있는 경우, 배우자(또는 애인)의 이성관계나 정절에 대하여 의심을 한 적이 있는 경우만 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이후 문항에 응답할 수 없도록 하였다. 아울러 어떤 병리가 있는지 응답하게 하여 배우자나 연인에 대한 질투망상성 외에 어떤 심리적 증상이 동반되는지도 확인하였다.

셋째, 질투망상에 대한 요인을 찾고 구별하였다. 연인과 부부관계에서 질투망상의 하위요인이 편집, 열등감, 학대, 불안임을 경험적으로 밝힌 것이 본 연구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연구되어진 망상 및 편집증으로 설명되지 못한 부부편집증인 질투망상만의 특성을 체계화할 수 있게 되었다. 질투망상을 보이는 경우 편집증과 열등감을 지니고 있으며 학대를 동반하고 불안이 내재된 심리를 갖고 있다는 점을 밝힌 것은 본 연구의 기여라고 사료된다.

넷째, 학대요인이 질투망상의 다른 요인인 편집, 열등감, 불안과 부적 상관에 있음을 검증했다. 또한 준거변인인 망상척도(PAI), 편집성척도(PS), 이화망어기제검사(EDT)의 투사, 심리도식 질문지(YSQ-L3-K)의 유기에서도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학대하는 행위를 통해 의심이나 열등감, 불안 등이 약화되는 보상경험을 하게 되어 이후에는 자칫 학대행위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다섯째, 기존에 검증되지 않고 임상현장에서 혼란하여 사용하던 의치증, 의부증 척도 등을 통합하고 분석하여 체계화하였다. 연구 과정은 심층 인터뷰, 주관식 문항에 대한 답변, 문헌분석, 전문가 검토 및 설문조사를 거쳐 문항을 제작하였고 프로그램을 통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검증된 척도이므로 부부 및 커플 치료 장면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제언

위와 같은 의의와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표집 시 질투망상 증상이 있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모집하고자 하였으나 한계가 있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편집증과 질투망상은 관련이 깊다. 편집증 환자는 종종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아 피험자 집단을 모으는 게 어렵고, 의심이 많아

방어적이어서 낮은 사람과 의미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쉽지 않다(Beck, Freeman, & Davis, 2019). 즉, 유증상자는 실제 의심을 하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상대 배우자나 연인에게 문제가 있다고 여겨 심리상담이나 병원치료를 위해 방문하지 않는다. 이로 인하여 일반인 중 스크리닝(Screening)을 통해 선별된 피험자를 통해 설문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표집 된 피험자가 질투망상을 가진 집단을 대표하기에는 제한점이 따른다.

둘째, 학대요인이 자존감척도(RSES)를 제외하고 모든 준거변인들과 부적상관을 보인다.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요인분석적재량을 보면 역채점 문항에서 적용되는 음(-)의 계수로 표기되어 있다. 학대요인의 문항은 '배우자(애인)에게 다른 이성이 있다고 의심이 들 때 나는 어떻게 행동 했는가'에 대한 개방질문의 답변을 정리하여 제작하였다. 문항특성을 살펴보면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 사용하는 피해자용 Controlling Behavior 설문지와 유사한 점들이 있다. 학대요인은 자신이 행하는 행동을 응답하는 문항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응답이 주어만 다른 점은 후속 연구에서 참고하여야 할 부분이다. Young의 연구에서 '의심/학대' 도식은 피학경험이 내면화 되어 타인을 의심하고 가학적 태도의 원인이 된다(Young, Klosko, & Weishaar, 2003). 본 연구에서는 질투망상으로 상대 배우자나 연인에게 표출되는 가학적행위를 측정하고자 하였으나 내면에 피학경험과 가학적태도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임을 가정할 때 이를 측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본다. 열등감에 의한 자기학대를 투사적동일시를 통해 배우자에게 행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은 후속연구에서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요인분석에서 검증될 것으로 예측했던 투사요인이 제거된 점이다. 연구의 첫 번째 단계로 개방질문을 통해 얻은 내용을 토대로 내용분석과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편집', '열등감', '학대', '불안', '투사' 다섯 개 요인을 가정하였었다. 그러나 예비조사 후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투사요인으로 가정 했던 문항들이 타 요인에 섞이거나 제거 대상이 되었다. 투사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심리적 속성이 타인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다(천성문 외, 2017). 증상자의 특성상 치료적 개입과 교정이 스며들지 못하게(Meissner, 2009) 가로 막았거나, 문항이 '투사' 요인을 반영하지 못한 것인지는 충분히 검증하지 못하였다. 준거타당도 검증에서 질투망상성(JDS) 총점과 이화방어기제검사(EDT)의 투사변인과는 가장 큰 정적 상관($r=.535, p<.01$)을 보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향후 연구가 진행되었으면 한다.

넷째, 제거된 문항들이 많이 있었다. 앞서 인터뷰한 피해 아내 3명의 남편 중 일부

는 아내를 의심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외도를 하고 있었다. 이를 근거로 제작된 문항이 있으나 '나는 성적으로 부적절한 생각을 하곤 한다'의 문항 또한 제거되었다. '배우자(애인)와의 문제를 제외하면 나의 사회생활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편집증은 비교적 일상생활에서 드러나지 않으며 다른 모든 성격 기능은 온전한 상태로 남아 있는 사람(Meissner, 2009)이라는 기준을 적용한 것이었으나 제거되었다. 각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을 선정할 때 요인 부하량 기준을 연구자가 정하여 선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순목(2010)이 제안한 기준을 사용하여 문항의 요인 부하량이 .40이상이며, 교차 요인 부하량이 .10이상 차이가 나고, 다른 요인에 .30이상 중복하여 적재되지 않는 문항만 선별하였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제거 하였다. 그러나 향후 연구뿐만 아니라 임상현장에서는 이를 염두에 두면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각 요인에 속한 문항의 분포가 적절하지 않다. 편집과 확대요인은 문항 수가 너무 많다고 볼 수 있으며 불안에 속한 문항은 상대적으로 적다. 후속 연구에서는 좀 더 명료하고 간결하게 요인을 분석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질투망상 분야의 미비한 연구의 특성상 많은 부분을 포함하지 못하였다. 특히 민수기 5장 12절 이하의 '질투의 영' 또는 '의심의 영'과 현 시대의 질투망상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기독교 상담 관점에서 심도 있는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면 한다.

- 논문 투고일: 2022년 10월 13일
- 논문 수정일: 2022년 11월 04일
- 게재 확정일: 2022년 11월 10일



√ √ √ √

【참고문헌】

- 권석만 (2018). **현대 이상심리학**. 서울: 학지사.
- 김기호 (2016). 셰익스피어 희극 작품 속 언어 표현에 나타난 뇌의 역할: 템페스트, 사랑의 헛수고, 당신 좋으실 대로, 베니스의 상인, 겨울이야기 작품을 중심으로. **언어과학연구**, 76, 23-43. <http://dx.doi.org/10.21296/jls.2016.03.76.23>
- 김상은 (2000). 인삼 사포닌이 니코틴에 의한 도파민성 신경전달 증강에 미치는 효과.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수율 (2006). 가정폭력의 실태와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아내폭력을 중심으로. 호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영환, 오상우, 홍상황, 박은영 (2017). **PAI의 임상적 해석**. 서울: 인싸이트.
- 김영환, 권혜수, 김지혜, 박은영, 박중규, 오상우, 이수정, 이은호, 조은경, 황순택, 홍상황 (2019). **PAI증보판 성격평가질문지 전문가지침서**. 서울: 인싸이트.
- 김재은, 이근후, 김정규, 박영숙 (1991). **이화방어기제검사실시요강**. 서울: 하나의학사.
- 김현철 (2017). **불안하니까 사람이다**. 서울: 애플북스.
- 김형준, 유상현 (2019). **청소년상담사2급이론서**. 서울: 나눔씨패스.
- 김효숙 (2014). 기독교인 중년여성의 부부갈등요인 분석.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미은 (1997). 매맞는 아내들의 학습된 무기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병렬 (2017). **Amos 24 구조방정식모델링**. 서울: 청람.
- 송지준 (2019). **송지준 교수의 논문통계의 이해와 적용(SPSS와 AMOS를 활용)**. 파주: 21세기사.
- 신명희, 서은희, 송수지, 김은경, 원영실, 노원경, 김정민, 강소연, 임호용 (2018).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오남경 (2015). 유기불안 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오윤선 (2012). 말씀묵상기도를 통한 용서프로그램이 기독교 청소년의 용서경험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복음과 상담**, 19, 217-244. <http://dx.doi.org/10.17841/jocag.2012.19..217>
- 우리말샘 (2020). **우리말 사전**. 한국: 국립국어원.
- 우아미, 박준성, 정태연 (2008). 집착행동의 구성요인 및 집착행동이 이성 관계에

- 미치는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3(4), 521-546. <http://dx.doi.org/10.18205/kpa.2008.13.4.007>
- 윤혜경, 오현숙 (2020). 편집성향을 가진 대학생들의 공감 특성. **청소년학연구**, 27(3), 121-149. <http://dx.doi.org/10.21509/KJYS.2020.03.27.3.121>
- 이사문 (2010). 중국 진출 외국기업 종업원의 조직후원인식과 조직몰입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순목 (2010). **요인분석의 기초**. 파주: 교육과학사.
- 이영희 (1993). 가정내 폭력의 요인에 관한 연구: 남편의 아내 폭력을 중심으로.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인재, 양남미 (2020). 관계중독 척도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5(2), 311-336.
- 이 현 (2015). 결혼이주여성의 자녀학대에 관한 연구: 배우자의 통제행위, 사회문화 부적응, 우울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훈진, 원호택 (1995). 편집성 척도(Paranoia Scale)의 신뢰도,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4, 83-94.
- 이희숙 (2008). 성인애착과 결혼만족 간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자림, 이영호 (2012). 한국판 이성관계 간섭행동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2), 209-225. <http://dx.doi.org/10.18205/kpa.2012.17.2.007>
- 정희연 (1993). 질투망상과 성욕. **순천향대학교논문집**, 16(4), 1189-1195.
- 조복희 (2010). **아동연구의 방법**. 파주: 교문사.
- 주명희 (2003). 부부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천성문, 이영순, 박명숙, 이동훈, 함경애 (2017). **상담심리학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통계청 (2015). **2015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제1권**.
- 한국여성의전화 (2019). 2019년 분노의 게이지 언론 보도를 통해 본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한 여성 살해 분석.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 황규홍 (1977). 질투망상에 관한 임상적 고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4, 372-379.
- Bagozzi, R. P., Yi, Y., & Phillips, L. W. (1991). Assessing construct validity in organizational research.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6(3), 421-458. <http://dx.doi.org/10.2307/2393203>

- Beck, A. T., Freeman, A., & Davis, D. (2019). **성격장애의 인지치료**(민병배, 유성진 역, *Cognitive therapy of personality disorders*). 서울: 학지사. (원전 2004 출판).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 I.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 Bradshaw, J. (2013). **수치심의 치유**(김홍찬, 고영주 역, *Healing the shame that binds you*). 서울: 사단법인 한국상담심리연구원. (원전 1988 출판).
- DeSteno, D., Valdesolo, P., & Bartlett, M. Y. (2006). Jealousy and the threatened self: Getting to the heart of the green-eyed monst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1*(4), 626-641. <http://dx.doi.org/10.1037/0022-3514.91.4.626>
- Deutsch, M. (1960). The effects of motivational orientation upon trust and suspicion. *Human Relations, 13*(2), 123-139. <http://dx.doi.org/10.1177/001872676001300202>
- Freedman, A. M., Kaplan, H. I., & Sadock, B. J. (1980). *Diagnosis and psychiatry, symptoms of psychiatry* (2nd ed.). (pp. 383-405). Baltimore: William & Willkins.
- Jacobson, N. S., & Addis, M. E. (1993). Research on couples and couple therapy: What do we know? where are we going?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1), 85-93. <http://dx.doi.org/10.1037/0022-006X.61.1.85>
- Leadbeater, B. J., Banister, E. M., Ellis, W. E., & Yeung, R.(2008). Victimization and relational aggression in adolescent romantic relationships: The influence of parental and peer behaviors, and individual adjustm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7*(3), 359-372. <http://dx.doi.org/10.1007/s10964-007-9269-0>
- LeDoux, J. (2006). *The emotional brain*. New York: Simon & Schuster.
- Meir, E. I., & Gati, I. (2016). Guidelines for item selection in inventories: Yielding score profile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41*(4), 1011-1016. <http://dx.doi.org/10.1177/001316448104100409>

- Meissner, W. W. (2009). 편집증과 심리치료(이재훈 역, *Psychotherapy and the paranoid process*).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원전 1986년 출판).
- Meltzer, H. Y., & Stahl, S. M. (1976). The dopamine hypothesis of schizophrenia: A review. *Schizophrenia Bulletin*, 2, 19-76. <https://doi.org/10.1093/schbul/2.1.19>
- Mikulincer, M., & Shaver, P. R. (2007). Attachment, group-related processes, and psychotherapy. *International Journal of Group Psychotherapy*, 57(2), 233-278. <http://dx.doi.org/10.1521/ijgp.2007.57.2.233>
- Mullen, P. E., & Martin, J. (1994). Jealousy: A community study.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64(1), 35-43. <https://doi.org/10.1192/bjp.164.1.35>
- Nestler, E. J. (2005). Is there a common molecular pathway to addiction? *Nature Neuroscience*, 8(11), 1445-1449. <http://dx.doi.org/10.1038/nn1578>
- Rempel, J. K., Holmes, J. G., & Zanna Mark P. (1985). Trust in clos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9(1), 95-112. <http://dx.doi.org/10.1037/0022-3514.49.1.95>
- Lewicki R. J., Mcallister D. J., & Bies R. J. (1998). Trust and distrust: New relationships and realiti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3(3), 438-458. <http://dx.doi.org/10.5465/amr.1998.926620>
- Schmidt, N. B., Joiner, T. E., Young, J. E., & Telch, M. J. (1995). The Schema questionnaire: Investigation of psychometric properties and the hierarchical structure of a measure of maladaptive schemata.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9(3), 295-321. <http://dx.doi.org/10.1007/BF02230402>
- Shin, L. M., Rauch, S. L., & Ritman, R. K. (2006). Amygdala, Medial prefrontal cortex, and hippocampal function in PTSD."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1071, 67-79.
- Stark, E. (2007). *Coercive control: How men entrap women in personal lif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tets, J. E., & Pirog-Good, M. A. (2016). Interpersonal control and courtship

aggressio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7(3), 371-394. <http://dx.doi.org/10.1177/0265407590073005>

Young, J. E., Klosko, J. S., & Weishaar, M. E. (2019). **심리도식치료**(권석만, 김진숙, 서수균, 주리에, 유성진, 이지영 역, *Schema therapy: A Practitioner's guide*). 서울: 학지사. (원전 2003 출판).

동아일보 (2019. 10. 12). '외도 의심'에 격분해 아내 살해한 60대...2심도 징역12년. <https://www.donga.com>에서 2022년 9월 12일 인출.

여성가족부 (2020). 2019년 가정폭력실태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4&bbtSn=704316에서 2022년 9월 25일 인출.

연합뉴스 (2020. 04. 07). 의처증 60대, 아내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 <https://www.yna.co.kr>에서 2022년 9월 15일 인출.

[Abstract]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Jealousy Delusion Scale in Couple Relationships

Kim, Chun Hee* Kim, Mi Ky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Jealousy Delusion Scale and to verify its reliability and validity. For this, previous studies were reviewed, and related questions were collected from 103 people who passed the screening process in interviews and online. A preliminary survey was conducted on 208 people, assuming five factors with 61 items selected by experts' content analysis. As a result of the preliminary survey, 52 items of four factors were extracted, and finally, this survey was conducted on 459 adult men and women to complete the jealousy delusional scale of 50 questions. SPSS 26.0 and AMOS 25.0 are used for this analysis. As a result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the four factors were identified as editing, feeling of inferiority, abuse, and anxiety.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onvergent validity, and discriminant validity were performed and validity was verified. The delusion scale of the 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 (PAI), the Paranoid Scale (PS), the projection scale of the Ewha Diagnostic Test, and the psychological diagram were used for the criterion-related validity analysis. As a result of conducting a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the total score of the jealousy delusion scale and the sub-factors and the reference variable, the validity of the criteria was verified to be acceptable. Finally, the implication and limitations of the scale and the necessity of follow-up studies were discussed.

Key words: Delusions of jealousy, paranoia, inferiority complex, abuse, anxiety

*Human Communication Counseling Psychology Research Institute
/ Researcher

**Seoul Hanyoung University,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Counseling
Psychology / Associate Professor